

# 동원책꾸러기 사료집

2007-2022





## 목차

- 4 그림책에 마음을 담아
- 6 책꾸러기 연혁
- 8 숫자로 보는 책꾸러기
- 10 좋은책맘 앙케이트
- 12 책꾸러기의 여정
- 38 인터뷰
- 60 출판사에서 온 편지
- 62 책꾸러기란 \_\_\_\_\_다
- 66 책꾸러기 감사편지
- 72 책꾸러기 인기 그림책
- 74 함께한 출판사

동원책꾸러기 채널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 동원책꾸러기가

# 책을 보내는 마음

하얀 종이처럼 깨끗한 어린이의 마음에

첫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 교육 중에서도 유아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세상을 알게 하고 꿈을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치를 알게 하는 것도 값진 교육일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사랑스런 대화 속에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보내드립니다.

— 동원그룹 명예회장 김재철 이사장



## 그림책에 마음을 담아



2007년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책꾸러기’가 탄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교육을 통해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책꾸러기의 출발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림책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IQ·EQ·CQ·SQ(지성·감성·창의성·사회성)가 균형 잡힌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인 책 읽기를 지원하는 책꾸러기는 만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한 달에 한 권씩 1년간 총 12권의 책을 보내드리는 사업으로, 지난 16년 동안 총 160만 권이 넘는 그림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림책 지원 외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 EBS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설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였고, 그 결과 2021년 5월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책꾸러기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여건이 미흡했고, 부모와 아이 간의 애착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으며, 초보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는 지역 도서관이 많이 생겨나 그림책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고, 부모가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형성되는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으며, 육아에 대한 정보도 넘쳐납니다.

책꾸러기는 이러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며, 2022년을 끝으로 책꾸러기 사업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과정을 옆에서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16년간의 책꾸러기 대장정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책꾸러기 사업 목표

1

우리 아이를 배워가는 시간  
그림책을 고르면서 아이에 대해 관찰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

책 읽는 습관 만들기  
매월 책을 기다리면서 책을 좋아하고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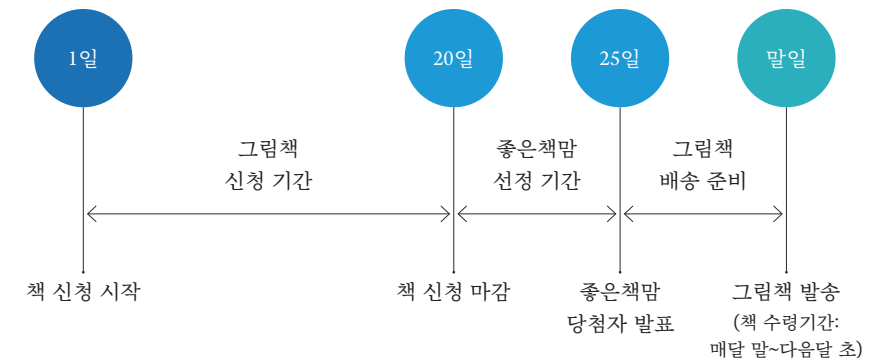
IQ, EQ, CQ, SQ 조화로운 발달  
아이와 함께 눈을 맞추고 책을 읽는 활동을 통해  
아이가 균형있게 발달하기를 바랍니다.

4

더 넓은 경험  
책 읽기를 넘어 책놀이를 통해 온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 책꾸러기 한 달 일정표



## 책꾸러기 연혁

### 2007

05 공식 서비스 오픈

### 2008

육아특강



### 2012

08 육아서 <엄마 교과서> 기획 발간

12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에 그림책 2,439권 선물

### 2013

08 제8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 강밀아 작가

11 육아강연 <착한 아이와 공격적인 아이>, 박경순 박사

12 세이브더칠드런 지역아동센터 1,047명에게 그림책 지원



### 2009

05 2주년 기념 육아강연 - 김재철 이사장, 조선미 박사

09 제1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 최승호 시인

10 제2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 이연실 작가

### 2010

04 제3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 권문희 작가

10 제4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 안도현 시인

### 2011

01 제5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 최숙희 작가

04 제6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 김인자 작가  
엄마와 함께 보는 재밌는 책이야기 <북키즈> 발행

09 제7회 와글와글 책꾸러기-정미라 작가

12 전국 병원 장기 입원 어린이 500명에게  
그림책 지원

### 2014

08 동원책꾸러기 홈페이지 리뉴얼

12 세이브더칠드런, 위스타트 다문화센터  
1,025명에게 그림책 지원  
동원책꾸러기 지원 그림책 100만 권 돌파

### 2015

01 페이퍼백 캠페인 <부드러운 그림책> 시작

05 EBS <한글이 야호> 제작 지원

10 한글날 이야기 특강 - 서경덕 교수

한글 나누미 1009모임 - 태국 6.25 참전용사  
마을에 그림책 1,009권 지원

### 2016

05 동원책꾸러기 생일파티 (장소: 난지 한강공원)

### 2017

04 10주년 기념 행사 (장소: 서울대학교 운동장)

07 10주년 사례집 발간

10 EBS <육아학교> 페이스북 라이브 공동 기획 및 제작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방송

### 2018

01 제13회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대상 특별상 수상

05 그림 그리기 대회 (장소: 서울대학교 실내체육관)

11 세이브더칠드런 지역아동센터 562명에게  
그림책 지원

12 교육서 <발도르프 유아그림의 수수께끼> 제작 지원  
EBS <나눔0700> '오늘의 나눔' 방영



### 2019

07 그림책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  
'동원북키즈카페(네이버)',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12 페이퍼백 캠페인 <부드러운 그림책> 종료

### 2020

06~12 코로나바이러스 그림책 제작,  
책꾸러기 회원에게 2만 권 지원

06 배송 포장재 친환경 제지박스로 변경

07 '동원북키즈카페' 네이버 대표 루키 카페 선정

### 2021

05 대통령표창 수상

08 동원책꾸러기 유튜브 개설

### 2022

02~07 도서낭독 북드림 캠페인 (비대면)

05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그림책 1,026권 지원

06~12 동원책꾸러기 지원 그림책 160만 권 돌파





## 숫자로 보는 책꾸러기

그림책과 아이들이 더욱 가까워지도록 달려온 책꾸러기의 16년.

그동안 책꾸러기가 아이들과 함께 쌓아올린 기록들을 숫자로 만나봅니다.

책꾸러기 시작부터 종료까지

(2007년 5월 5일~2022년 12월 31일)

5,720 일

책꾸러기 추천도서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교감한 시간은 5,720일에 달합니다.

함께한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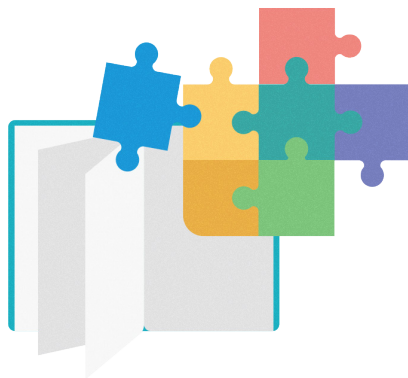
146 곳

국내 146개 출판사가 동원육영재단과 뜻을 모아  
책꾸러기 친구들에게 책을 제공했습니다.



2007

2022



책꾸러기가 친구들에게 보낸 책

(2022.11.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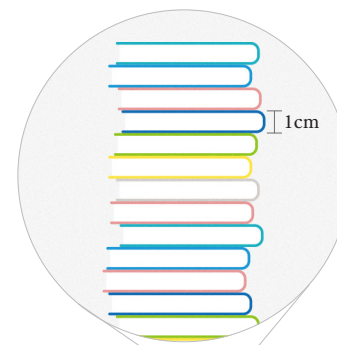
1,621,129 권

책 한 권의 두께가 1cm라면, 책을 모두 쌓았을 땐 16km.

높이 508m 롯데타워의 31배가 넘습니다.

책 한 권 표지 너비가 20cm이고 20p짜리 책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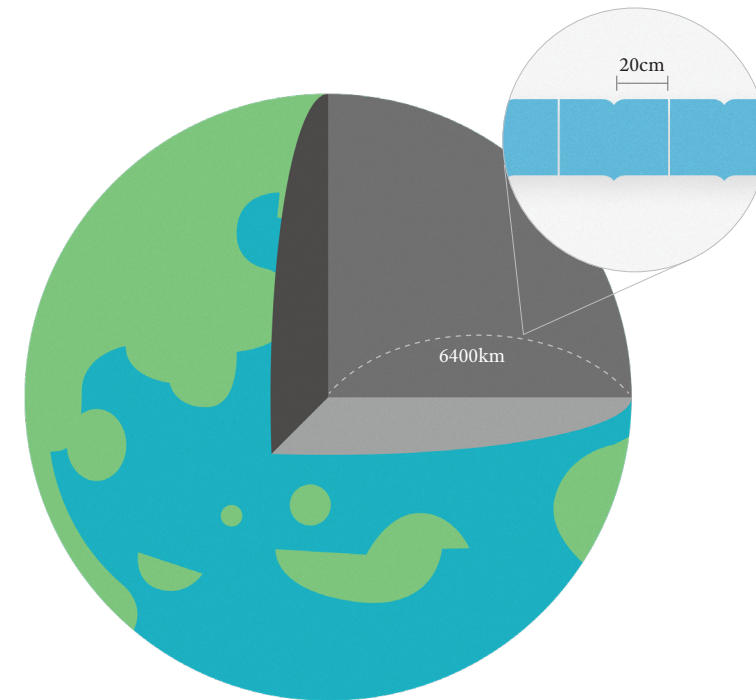
책을 모두 펼쳤을 때 지구 반지름 6400km에 달합니다.



16km



508m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
| 35,444  | 93,222  | 109,997 | 99,177  | 85,100  | 55,190  | 64,514 | 98,155 | 128,052 |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         |
| 130,008 | 135,012 | 123,785 | 135,060 | 120,340 | 159,719 | 48,354 |        |         |

(단위: 권)

## 좋은책맘 앙케이트

1년간 책꾸러기가 보낸 그림책을 부모와 함께 보며 교감한 아이들은

1년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이를 가장 가까이 지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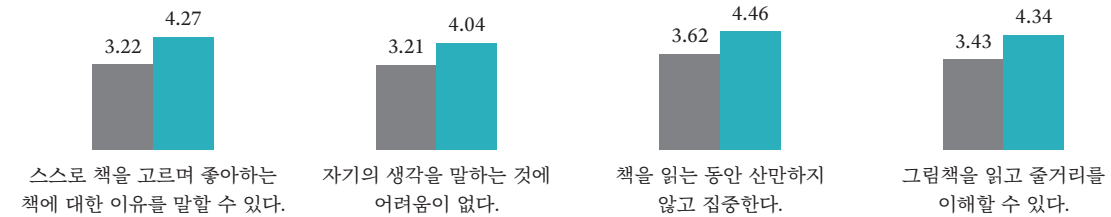
좋은책맘들에게 아이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설문기간:  
2022년 8월 1일~9월 20일  
참여대상:  
동원책꾸러기  
좋은책맘 1,3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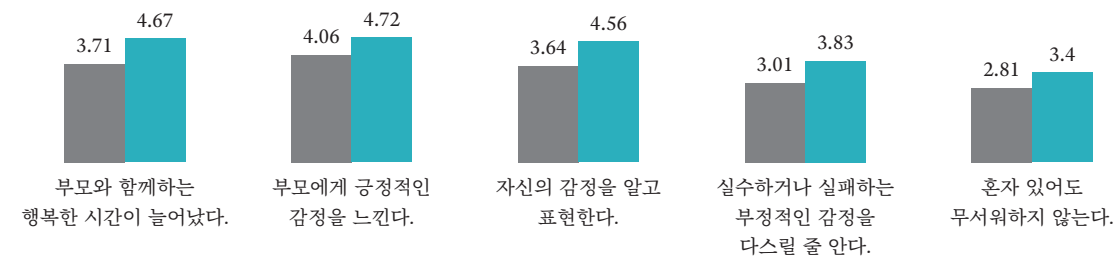
단위: 점수

■ 참여 전  
■ 참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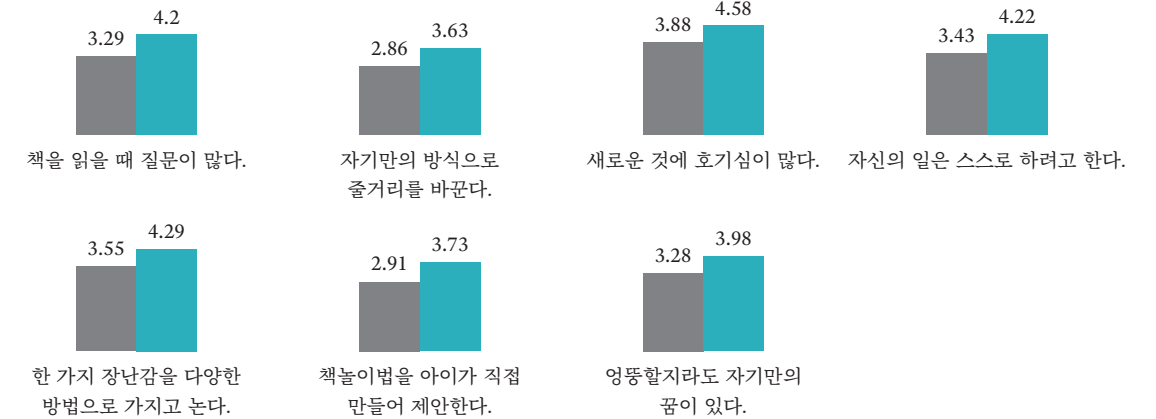
1. IQ(지능지수)는 지능검사의 결과로 지능의 정도를 총괄해 하나의 수치로 나타냄을 뜻합니다. 좋은책맘은 책꾸러기에 참여하기 전과 후, 아이들의 IQ와 관련된 행동 양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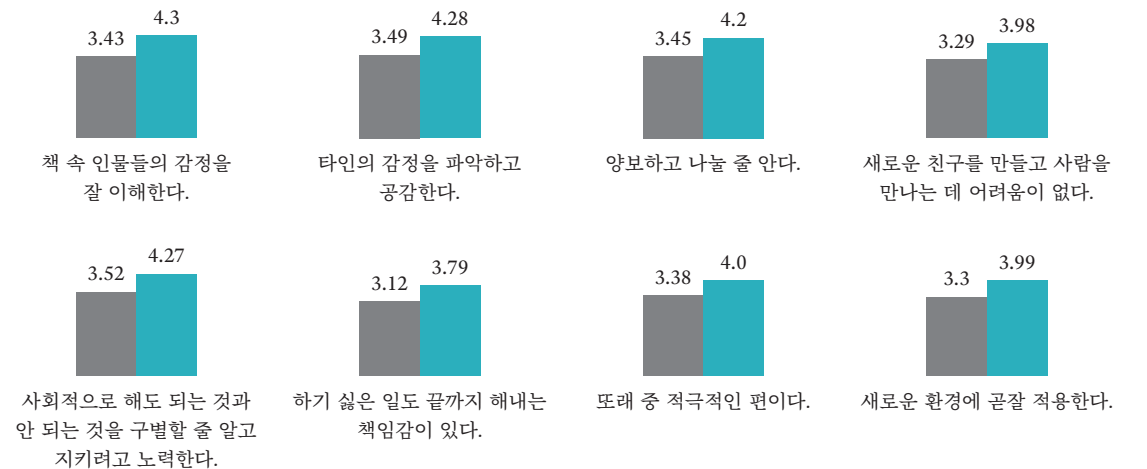
2. EQ(감성지수)는 지능지수(IQ)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를 뜻합니다. 좋은책맘은 책꾸러기에 참여하기 전과 후, 아이들의 EQ와 관련된 행동 양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3. CQ(창의성 지수)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재는 기준입니다. 좋은책맘은 책꾸러기에 참여하기 전과 후, 아이들의 CQ와 관련된 행동 양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4. SQ(사회성 지수)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며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능력을 재는 기준입니다. 좋은책맘은 책꾸러기에 참여하기 전과 후, 아이들의 SQ와 관련된 행동 양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 우리가 함께 채워 온 책꾸러기의 시간

책꾸러기의 여정

동원육영재단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2007년 5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원책꾸러기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동원책꾸러기는 16년 동안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26만여 가정에 160만 권이 넘는 그림책을 보급했습니다.  
책꾸러기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사랑하고 교감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매개가 되는  
‘그림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발씩 내디더 온  
성과이자 함께 써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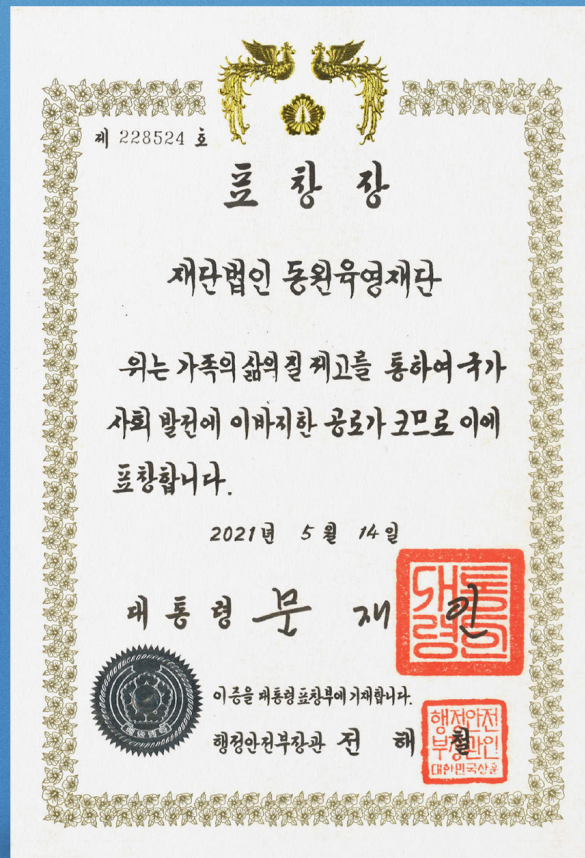
## 독서 교육 실현 공로로 수상

책꾸러기는 교육 브랜드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을 통해 탐과 노력을 높이 평가 받은 만큼,

동원육영재단이 다시금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 13회 학부모가 뽑은

교육 브랜드 대상

‘특별상’ 수상

2018

‘학부모가 뽑은 교육 브랜드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교육부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인지도, 만족도를

평가해 우수 교육 브랜드를 선정합니다. 동원책꾸러기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가정에 보낸 그림책 수는 총 약

120만 권. 책꾸러기는 아이와 부모가 그림책을 매개로

애착을 형성하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아동 독서 교육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이 상을 받았습니다.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2021

2021년 5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동원육영재단이 가족 문화

개선과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는 포상제도입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분야 정책 추진,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합니다. 동원육영재단은 동원책꾸러기를 통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책을 매개로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독서 교육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 다양한 회원 참여 행사 개최

동원책꾸러기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는 체험활동을 하면서 또래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등의 올바른 행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2주년 기념 육아 강연

2009.5.2

2007년 시작한 책꾸러기는 2009년 5월 2주년을 맞이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김재철 이사장은 국민의 평균 지능지수(IQ)가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재철 이사장은 “이미 만들어 낸 것을 외우기보다 책을 많이 읽고 질문하고 상상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작금의 교육 실태에 일침을 놓고 새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올바른 인격 형성은 다 자란 큰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릴 적 가정에서 체득하는 것이 훨씬 쉽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가정에서의 유아교육을 강조했습니다.

## 와글와글 책꾸러기

2009~2013

‘와글와글 책꾸러기’는 문화예술계 작가 또는 예술가를 초청해 다채로운 이야기와 체험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5년간 총 9명의 인사가 8번의 와글와글 책꾸러기와 함께했습니다.

### 제 1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2009.9)

〈말놀이 동시집〉의 저자 최승호 시인, 이준혁 드러머와 만나,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재미난 시와 심장이 두근거리는 타악기 소리로 체험했습니다.

### 제 2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2009.10)

〈먼지깨비〉의 저자 이연실 작가를 초청해, 책꾸러기 친구들과 나만의 먼지깨비를 만들고, 숨씨를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제 3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2010.4)

〈줄줄이 펜 호랑이〉의 저자 권문희 작가와 함께 전래동화를 이야기하고, 옛이야기 속 호랑이가 되어 신나게 놀이했습니다.

## 제 4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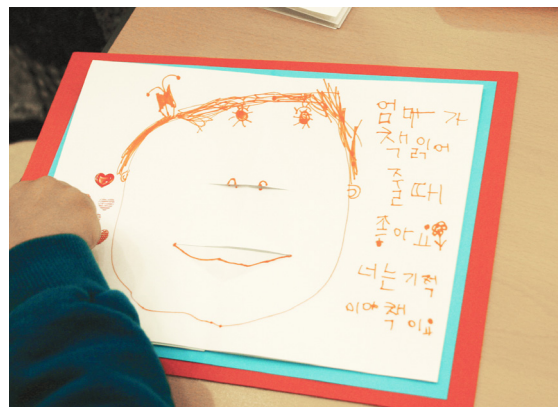
〈남남〉의 저자 안도현 시인과 만났습니다. 시인은 동시도 어른들의 시 만큼이나 진지하게 수십번 고쳐서 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꽃피는 주먹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 제 5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2011.1)

입체북 만들기. 〈너는 기적이야〉의 저자 최숙희 작가와 함께 책을 읽고, 부모와 아이가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입체북으로 만들었습니다.

## 제 6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2011.4)

그림자 놀이. 〈아빠 몰래 할머니 몰래〉의 저자 김인자 작가와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그림자 연극 놀이를 했습니다.



## 제 7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2011.9)

〈누에가 자라고 자라서〉의 저자 정미라 작가와 그림책 속 주인공의 실제 인물인 저자의 두 아들이 함께했습니다. 곤충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관찰 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책만으로는 접할 수 없는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나누었습니다.

## 제 8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2013.8)

〈착한아이 사탕이〉의 저자 강밀아 작가와 만나 걱정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나쁜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는 걸 어른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책꾸러기 10살 생일파티

2016.5.5

책꾸러기가 10살 되던 2016년 어린이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책을 읽으며 마음의 그릇과 사고력을 키우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배려를 배웠으면 한다는 취지로 한강 난지공원에서 책꾸러기의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250 가구를 초대한다는 공지가 뜨자 순식간에 참가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참가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문용린 고문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엔 관객 모두 하나가 되어 “동원책꾸러기의 10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후 무대 위에서는 신나는 댄스 대회, 알쏭달쏭 OX퀴즈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체험존에서는 축구왕 슛돌이, 페이스 페인팅, 체험 버블버블, 페이퍼백 도서나누기, 느린 우체통, 포토타임, 연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고 아이들은 솜사탕, 팝콘, 저금통 등 푸짐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이미 읽은 책은 기부하고 새 책을 선물 받는 페이퍼백 부스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진·내용 출처: 동원그룹사보\_2016 여름 중)



독후그림그리기 대회

2018.5.5

어린이날을 맞아해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그림 잔치가 열렸습니다. 대회엔 235가족, 900명이 참가해 그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랑, 상상, 관찰, 재치, 환경, 나눔, 협동 등 주제별 추천 도서 10종 중 한 권을 골라 읽고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은 크레파스나 물감은 물론, 반짝이 풀, 비즈, 갖가지 문양의 포장지까지 활용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완성한 그림을 접수한 친구들은 체육관 곳곳에 마련된 체험 행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동원책꾸러기 추천 도서전, 책꾸러기 지문트리, 페이스 페인팅, 동원책꾸러기 추천 도서전, 책꾸러기 자문트리 코너 등 곳곳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체험 행사가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동원스케치북 보드에 초등부 84작품, 유치부 159작품이 부착되었습니다. 한 가족당 2개의 스티커를 배부해 가장 잘 그린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고, 심사 끝에 총 45개 작품을 선정해 동원책꾸러기 추천 그림책 10권 묶음을 수여했습니다. (사진·내용 출처: 동원그룹사보\_2018 여름 中)





## 이웃과의 나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해야  
진정한 이웃이며 친구입니다.  
책꾸러기는 보다 많은 아이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도움이 필요한 곳들과 함께했습니다.



### MOM을 담은 책꾸러기 팽

2012.12.7

책꾸러기 회원인 좋은책맘을 대상으로 ‘산타 이모’를 모집, 직접 작성한 크리스마스 카드와 2,439권의 그림책을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한 좋은책맘 30여 명은 그림책 2,439권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으며 성별과 나이에 맞춰 책을 포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만나던 엄마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습니다. 동원육영재단의 장학생인 대학생들도 루돌프가 되어 무거운 책들을 번쩍 번쩍 옮겨 주기도 했습니다. 좋은책맘이 손수 포장한 2,439권은 위스타트 산본마을 지역어린이 아동센터에 전달되었습니다.

(사진·내용 출처: 동원그룹사보\_2012 겨울 중)

### 사랑의 책 포장 봉사활동

2012.12.7

책꾸러기 회원 좋은책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총 1,047명의 전국 세이브더칠드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약 25명의 좋은책맘은 한 권 한 권 정성스레 책을 포장하고, ‘1일 산타 이모’가 되어 따뜻한 메시지를 더해 차곡차곡 상자에 담았습니다. 전년도 봉사활동에 이어 1년 만에 만났기에, 이야기꽃을 피우며 책을 포장하다 보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내 아이, 네 아이가 가리지 않고 모든 아이가 즐겁게 책과 만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빛난 하루였습니다.

(사진·내용 출처: 동원그룹사보\_2013 겨울 중)

### 산타이모의 행복한 책 선물

#### ‘Merry Donors Mas’

2014.12.11

책꾸러기 회원인 좋은책맘과 자녀들이 모여 1,025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보낼 도서를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이 나눔의 손길이 더욱 특별했던 건, 책 한 권 한 권이 받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선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전에 복지기관 교사들로부터 선물 받을 아이들 각자가 선호하는 것에 대해 들었기에, 좋은책맘들은 이에 맞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책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동원육영재단 김재철 이사장도 좋은책맘 응원차 깜짝 방문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즐거웠습니다.

(사진·내용 출처: 동원그룹사보\_2014 겨울 중)



### ‘2015 한글 나누미 모람’

#### 569돌 한글날 기념 도서 기부

2015.10.9

태국 6.25참전용사의 후손들이 다니는 한글공부방에 한글책 1,009권을 기부했습니다. 책꾸러기 회원 50 가정은 이날 동원산업빌딩에 모여 태국에 보낼 한글 그림책을 직접 포장했습니다. 서경덕 교수가 진행하는 ‘한글날 이야기’ 강연을 듣고, 한글 사랑 부채를 만들기, 붓글씨 쓰기 체험까지 즐겼습니다.





## 도서 출간 지원

책을 나누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책 제작을 주도하기도 한 책꾸러기.

책이 가진 힘을 알기에,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부모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엄마 교과서〉 발간

2012.8

책꾸러기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깊이 있는 육아서 발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 비룡소와 공동으로 박경순 정신분석학 박사와 〈엄마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엄마 교과서〉는 눈앞에 일어난 현상에 급급해하기보다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며 원칙대로 아이를 올바르게 대하는 부모가 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 책을 쓴 박경순 박사는 정신분석학의 초석을 깬 대가들이 알려주는 이론을 참고하면 육아의 기본 요소인 ‘부모자녀 관계’와 ‘육아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엄마 교과서〉는 배워 본 적 없는 육아를 해내야 하는 모든 엄마들이 올바른 원칙과 방향을 세우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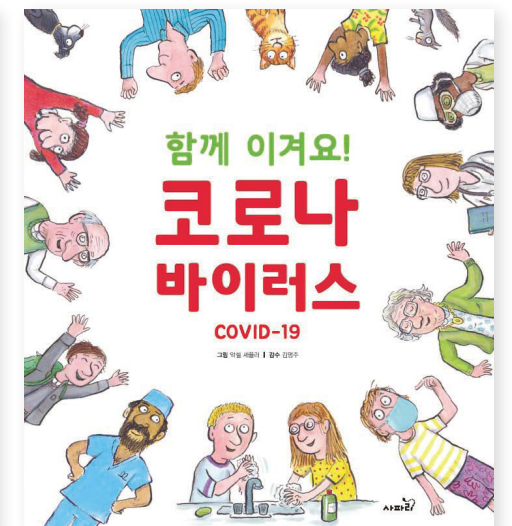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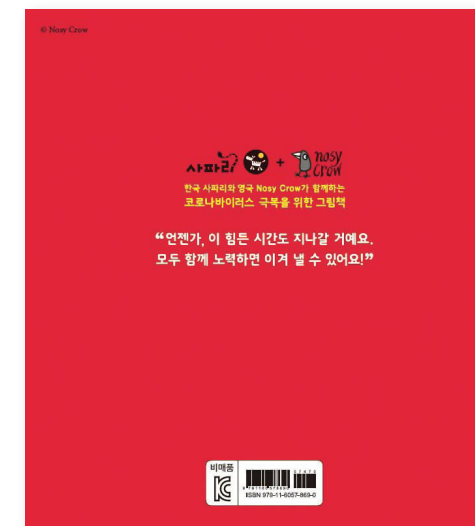
(사진·내용 출처: 동원그룹사보\_2012 가을 中)

### 그림책 〈코로나 바이러스〉 제작, 책꾸러기 회원에게 2만여 권 지원

2012.8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이들이 전처럼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책꾸러기는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감염병에 맞서 아이들과 가정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책 제작에 참여, 책꾸러기 회원에게 2만여 권을 무료 배포했습니다.

그림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국 Nosy Crow 출판사 출간 도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이며 왜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위생 관리에 대해 알려주며, 모두가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소통 채널과 방법 확대

책꾸러기는 많은 가정과 함께했기에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서로 힘을 합하며

책꾸러기의 시간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 북드림 낭독 캠페인

2022.2.15~2022.3.31

‘목소리로 사랑을 나누는 북드림 낭독 캠페인’은 그림책을 읽는 목소리를 녹음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여 비대면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동원육영재단은 캠페인 참여 1건당 도서 5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책꾸러기 회원 좋은책맘과 작가, 출판사,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미혼모협회 등 수많은 이의 도움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76개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기증하기로 약속한 880권(참여 176건×5권)에 동원육영재단이 추가로 146권을 기부하기로 하여, 총 1,026권의 그림책을 사단법인 한국미혼모협회를 통해 79곳의 미혼모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북드림 낭독 캠페인  
유튜브 콘텐츠  
바로 가기



북드림 낭독 캠페인  
카페 바로 가기



## 온라인 커뮤니티

### ‘북키즈카페’ 개설과 운영

2019.07~2022.12

온라인 커뮤니티 ‘북키즈카페’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책꾸러기 회원인 좋은책맘은 책꾸러기로부터 받은 그림책을 보고 카페에서 소감을 이야기하거나 자녀 나이대별 책놀이법을 공유했고, 댓글로 활발하게 의견과 감상을 주고받으며 소통했습니다. 책꾸러기는 그림책 작가 인터뷰, 육아고민 Q&A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며, 북키즈카페를 소통의 창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2019년 7월에 개설한 북키즈카페는 회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2020년 12월 ‘2020 네이버 대표 루키 카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베스트 책놀이법 5’ 북키즈카페  
유튜브 콘텐츠  
바로 가기



북키즈카페  
바로 가기



- 1 책꾸러기  
공지사항부터 책꾸러기 제작 콘텐츠까지, 책꾸러기의 목소리
- 2 책소감 책놀이  
책꾸러기로부터 받은 그림책으로 책놀이한 생생 후기
- 3 책 육아  
책 육아를 위한 책꾸러기와 회원들의 실천 노하우
- 4 맘소통 맘힐링  
일상 토크와 공감대 형성
- 5 이벤트  
다채로운 경품이 함께하는 이벤트 개최



## 육아 전문가의 솔루션 공유

책꾸러기 회원들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책꾸러기는 유튜브  
‘육아고민상담소’ 콘텐츠를  
통해 회원들을 대신하여  
육아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회원들의 육아 고민을 묻고  
솔루션을 들어봤습니다.

### “부모와의 그림책 읽기는 아이의 두뇌 발달에 가장 큰 선물”

김영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영유아기 자녀의 두뇌 발달을 궁금해하는 회원들을 대신해  
책꾸러기가 김영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영훈 교수는  
두뇌 발달에 있어 그림책 읽기의 효능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지능과 사고력, 판단력, 논리력  
발달은 언어에 기반하기에, 부모와의 대화 그리고 그림책  
함께 읽기가 아이의 두뇌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는 일방적이기에 두뇌 자극에 한계가  
있지만, 반면 부모가 그림책을 읽어줄 땐 생생한 표정, 소리,  
반응 등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두뇌 발달로 이어진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두뇌 발달 과정을 성장 단계별로 설명한  
김 교수는, 특히 전두엽이 주로 발달하는 5~6세 시기에  
그림책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고 훈육은 반드시 엄하게”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책꾸러기 선정 육아서 <엄마 심리 수업>의 저자이기도 한  
윤우상 원장을 만나 적절한 훈육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훈육은 대부분의 부모가 고민하는 주제인 만큼 책꾸러기  
회원들도 댓글을 통해 많은 사전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우상  
원장은 가장 먼저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100%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아이의 기질이 걱정되고 부정적으로 보일  
땐 엄마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아이를 100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윤 원장은 훈육엔 정답이 없지만  
훈육을 할 땐 명확한 기준과 엄하고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하며, 아이 기질에 따라 훈육의 강도와 허용 정도를 조절할  
것을 권유하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적정 훈육 수준은  
엄마 스스로 파악해야 하며 다른 사례에 휩쓸리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 “아이 사회성 발달의 시작은 부모와의 교류”

이임숙 맑은숲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아동·청소년심리치료사)

동원육영재단과 EBS <육아학교>를 함께 제작하기도 한 이임숙 소장을 만나, 코로나 시대 아이 양육 노하우를 물었습니다. 가정보육 시간이 길어진 만큼, 책꾸러기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사전 질문을 던지며 육아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임숙 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사회성의 기본은 부모와의 관계’임을 강조하며, 아이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역할놀이, 책놀이 등 아이와의 놀이 노하우를 전하면서,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책 육아”

이혜진 작가

전직 언론사 기자이자 현재 두 아이를 양육 중인 이혜진 작가는 책꾸러기 선정 육아서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가는 엄마입니다>의 저자입니다. 엄마라는 정체성과 육아라는 큰 과제 앞에서 혼란을 느끼던 이혜진 작가는 도서관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육아 방향을 찾았던 경험으로, 책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책꾸러기 회원들의 물음에 성심성의껏 답했습니다. 작가는 코로나 시대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하면서 다독보단 정독을 권유했으며, 그 외에도 독서의 폭을 확장시키는 방법 등 아이 독서 습관 지도 노하우, 도서관을 활용한 영어 학습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육아고민상담소  
유튜브 콘텐츠  
바로 가기





## 그림책 작가 인터뷰

그림책을 보다 보면

아이도, 부모도

그림책을 만든 작가에게

관심이 생깁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들을

만나,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작품 제작

스토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림책 작가 인터뷰  
유튜브 콘텐츠 바로가기

### 〈수박 수영장〉저자 안녕달 작가

‘수박’처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를 특유의 감수성과 상상으로 위트 있게 풀어내는 안녕달 작가. 대표작이자 데뷔작 〈수박 수영장〉은 최근 뮤지컬로 재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책꾸러기 회원들은 안녕달 작가가 수박과 수영장을 연결 짓고 이야기 속 기발한 설정을 하게 된 배경을 많이 궁금해 했고, 작가는 수박에 얹힌 개인적인 추억과 다채로운 의성어를 표현하기 위한 노력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 〈핑 아저씨〉저자 김미소진 작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선택의 어려움을 위트있게 그려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의 공감까지 이끌어 낸 〈핑 아저씨〉. 책꾸러기가 추천도서로 선정하면서 많은 열독자가 생겨난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김미소진 작가는 주인공 이름의 ‘핑’에 담긴 의미와 주요 배경을 화장실로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핑 아저씨의 옷차림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당근과 고양이를 소재로 선택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 〈아빠가 달려갈게!〉, 〈엄마가 달려갈게!〉저자 김영진 작가

아이와 아빠, 엄마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이야기로 좋은책맘 사이에서 언제나 최고 인기를 누리는 그림책. 책의 인기 만큼 작가를 향한 좋은책맘들의 질문도 폭발적이었으며, 특히 김영진 작가의 개인적인 배경을 궁금해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자녀들이 뮤즈임을 밝히며, 그림책 구석구석에 담긴 의미들을 개인적 경험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 〈뽕뽕뽕〉저자 윤정주 작가

냉장고 속 음식과 식재료들이 한밤중 소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로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는 그림책 〈뽕뽕뽕〉. 윤정주 작가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쓰고 그린 이야기처럼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회원들에게 또 한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가는 〈뽕뽕뽕〉의 배경이 된 개인적 에피소드와 제목을 짓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림책 곳곳에 숨은 크고 작은 장치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렸는지 들려주었습니다.

### 〈슈퍼거북〉, 〈슈퍼토끼〉저자 유설화 작가

이솝 우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그린 유설화 작가. 그의 작품은 현대사회의 경쟁 속 승자와 패자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해, 어른들에게도 마음의 큰 울림을 줍니다.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인극을 공연을 하기도 하는 작가는, 직접 어린이들을 마주하는 만큼 어린이 회원들의 질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성의 있게 답했습니다. 또한 책 속엔 작가의 메시지가 있더라도 정답은 없으며, 해석은 독자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괜찮아〉, 〈나도나도〉저자 최숙희 작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 중 한 명 최숙희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의 그림책엔 유독 수줍고 소심하고 눈이 큰 아이가 많이 등장하는데, 작가는 그림책 속 인물은 대개 어린 시절 자신을 모델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숙희 작가는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작품에 끼친 영향을 여러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하며, “행복하지 않은 엄마 밑에선 아이 또한 행복하게 자랄 수 없다”고 엄마부터 행복해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 환경 보호 실천

깨끗한 지구를 향한 책꾸러기의 실천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행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 배송 포장재 친환경 제지박스로 변경 2020.6~

책꾸러기가 도서 발송 포장재를 기존 비닐 포장재에서 살림관리협회의(FSC)인증 친환경 제지 박스 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책꾸러기가 환경 문제를 고려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했던 페이퍼백(부드러운 그림책)캠페인에서도, 양장도서 제작에 들어가는 종이를 줄이고 보다 간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환경과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하는 취지로 일회용 비닐 소재 배송 봉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꾼 것입니다. 기존 비닐 봉투는 배송 과정에서 책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면서 이와 같은 불편함 또한 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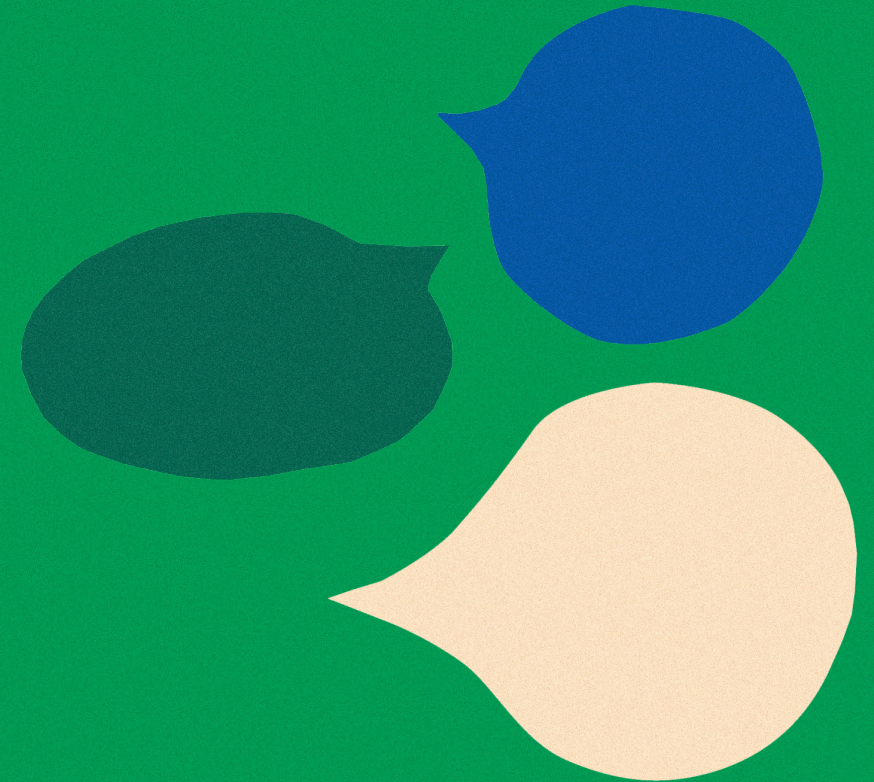


# 그림책으로 ‘아이들의 꿈’을 만든 사람들

---

책꾸러기 인터뷰

세상에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듯이  
책꾸러기도 많은 이가 뜻을 모았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이라는 작은 씨앗을 시작으로  
수많은 아이가 부모와 교감하며 꿈을 키우게 되기까지,  
책꾸러기를 다듬고 채우고 사랑한 이들을 만나봅니다.





## 책꾸러기의 시작과 끝

### 김재철 동원육영재단 이사장



책꾸러기는 동원육영재단에서 2007년부터 2022년간 운영한 사업입니다.  
16년간 그림책 육아 문화를 선도해온 책꾸러기 사업을 주관해 온  
동원육영재단 김재철 이사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책꾸러기 사업이 16년의 대장정 끝에 종료되는데, 마무리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책꾸러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꽃이 만개하는 것 같아 참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생각합니다. 책꾸러기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해 준 많은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책꾸러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이사장님께서 쓰신 <책꾸러기가  
책을 보내는 마음>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 교육에서도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문화를 이끄셨는데, 16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업가이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  
원양어선을 이끌고 해외로 다니면서 서러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 '나라가  
잘 되어야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키우려면 생각할 줄 아는 인재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바다사랑 · 지구사랑 ·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미가 깊은 활동이었지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쉬웠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선 듣기, 읽기, 쓰기가 중요한데, 그  
근간인 독서에 초점을 두고 책 읽기를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유아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2007년에 지금의  
책꾸러기가 탄생했습니다.



책꾸러기는 16년 동안 26만여 가정에 160여만 권의 책을 보급하고  
 ‘18년도에는 제13회 학부모가 뽑은 교육 브랜드 대상에서 ‘특별상’을,  
 ‘21년에는 가족 문화 개선, 관계 증진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에 연연하지 않지만, 공로를 인정해 주니 기쁘긴 합니다. 기관에서  
 받는 상도 의미가 있지만, 책꾸러기를 통해 독서 습관이 길러지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수혜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 가지 사업을 16년 동안 대가 없이,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꾸러기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책꾸러기의 취지에 동참해준 우리 책꾸러기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책꾸러기는 도서를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사,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작지원, 출판 지원 등의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열성적으로 참여해준 책꾸러기 회원님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녀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는데, 회장님만의 교육철학이 있으신가요?

젊은 날의 고생이 곧 인생의 자산입니다. 원앙어선을 탔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태풍이 밀려올 때 바람을 피하려 들면 자신도 모르게 태풍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풍파 없는 바다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건 맞서 싸우려는  
 용기와 경험들입니다.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실제 장남인 김남구 회장(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북양의 트롤  
 어선을 6개월간 타게 했고, 차남 김남정 부회장(동원그룹 부회장)은 참치

공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참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책꾸러기를 통해 수혜 받은 가정의 아이들이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학비평가인 리처드(I. A. Richards)는 “책은 생각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책꾸러기를 통해 독서가 습관화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줄 알았으면  
 합니다. 더욱이 꾸준한 책 읽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을  
 확장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6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잘 성장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와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젊은 세대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건 어떤  
 면에선 당연하고 그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사사로운  
 일에 매번 불평하는 버릇은 결코 현명하지 못합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륙 끝에 붙어있는 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으로  
 향하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발상을 전환해 보기도 하며, 세계 시장에  
 진취적으로 도전했으면 합니다. 인생의 짐은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그럴수록 인간은 성장합니다.



## 책꾸러기의 총책임자

동원육영재단

김은자 상임이사



책꾸러기의 사업 종료를 기념하여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이자, 교육학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책꾸러기 사업을 총괄해온 김은자 상임이사의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책꾸러기 사업이 2022년을 끝으로 종료가 되는데, 마무리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책꾸러기는 동원육영재단에서 2007년부터 16년간 운영해온 사업입니다.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재단의 역할은 다했다고 느껴집니다. 동원육영재단에서 책꾸러기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육아에 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았어요. 16년이 지난 이제는 육아에 대한 정보가 넘치기에 우리는 더 필요한 것,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꾸러기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책꾸러기의 마지막 비대면 행사인 ‘북드림 낭독 캠페인’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림책을 읽는 목소리를 녹음해 업로드하는 건수 만큼 그림책을 기부하는 도서 기부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의 취지는 김재철 이사장님의 글 〈어린이에게 책을 보내는 마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늘 함께 기부할 수 있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운영해왔고,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처음 시도해 본 비대면 기부 캠페인이었어요. 캠페인 기간은 2개월이 채 안 됐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 1,000여 권의 책을 사단법인 한국미혼모협회에 기증했습니다. 또 그렇게 모인 목소리들이 책을 읽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된 목소리들을 한 문장씩 이어 붙여 동원육영재단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 작가, 책꾸러기 회원들 등 수많은 분이 저희와 뜻을 함께해주셔서 참 감사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책 육아가 인기이고, 그림책도 무척 많습니다. 어떤 그림책을 골라야 할까요?

책꾸러기에선 매달 추천도서를 선정하는데, 여기엔 책꾸러기만의 다섯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그림책은 무조건 재미있어야 합니다. 어른의 시선으로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공감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 표현을 이끌어내거나, 부모의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켜 옛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림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셋째, 그림책이니 그림도 중요합니다. 물감의 다양한 기법, 사진이나 종이를 찢어 붙여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넷째,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했습니다. 외국에선 그림책을 나라의 문화나 풍습에 자부심을 갖기 위한 도구로 많이 활용해요. 세계 시민으로 자랄 우리 아이들도 다양한 문화를 그림책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 전래동화나 전통적인 동양화 작품도 빼놓지 않았어요. 다섯째,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글과 그림이 알맞게 매칭이 되어야 하고, 책에서 사실로 묘사한 것은 고증된 것이어야 하죠.

상임이사님께선 교육학 연구자이기도 하십니다. 올바른 유아교육 방향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아기엔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를 위해선 엄마가 육아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신을 좀더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라면 아이는 잘 자랄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단 둘이 있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아이와 나를 믿고 여유를 갖고 감정 교류를 하면 아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뭘 필요로 하며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어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적절한 훈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이들의 뇌는 감정과 사회성, 표현력이 발달된 다음에야 선행학습과 관련된 인지적 기능이 발달합니다. 감성적인 면을 키워주어야 할 시기에 인지적인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뇌 손상이 일어난다는 점이 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또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도 뇌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주입은 뇌 신경세포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며 소멸되게 하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이의 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책꾸러기 추천도서를 좋은 그림책의 기준으로 삼는 분이 많습니다.

책꾸러기 사업이 종료되면 선정도서 목록도 볼 수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책꾸러기 추천도서 목록은 동원육영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곧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후 책꾸러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의 사유로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꾸러기를 함께 꾸려온 회원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원육영재단에선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라이프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지만, 인성 교육은 누가 뭐래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책꾸러기를 통해 가졌던 책을 읽는 습관, 아이와 함께 성장했던 경험들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 주세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필요한 인재로, 자존감과 자율성, 배려심이 강한 아이로 자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책꾸러기에 대한 애정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부모님들의 행복한 육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그림책 만드는  
책꾸러기의 친구  
비룡소  
박상희 대표



책꾸러기에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그림책을 만들고 책꾸러기가 가는 길에 오랜 시간 동행해 준 출판사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룡소 출판사는 책꾸러기의 유아교육관에 공감하며 그림책뿐 아니라 육아서 발간도 함께한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입니다.

비룡소는 책꾸러기에 긴 시간 동참하며 그림책을 제공해왔습니다.

책꾸러기 종료를 앞둔 대표님의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동원육영재단에서 참 좋은 일을 하셔서 감사했고, 이제 종료된다니 아쉽기도 합니다. 전 책꾸러기의 시작부터 지켜왔는데요. 동원책꾸러기는 16년 동안 한결같이 아이들에게 전해 줄 좋은 보물을 고르는 것처럼 육아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출판사도 찾아다니고 작가도 만나며 책을 골라왔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그림책인 만큼, 아이들이 자라는 데 큰 자양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림책 출판계가 성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고, 비룡소가 책꾸러기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에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그림책 출판계가 성장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또 여기에 책꾸러기가 어떻게 힘을 보탰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중에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가 있어요. 올해 라가치상을 수상했고, 어린이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테르센상도 우리나라 최초로 수상했지요. 글 없는 그림책인데 그림만으로도 시원한 여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책꾸러기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책꾸러기를 통해 좋은 작가들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작가들을 많이 고무시켰으니까요.



비용소는 책꾸러기와 어떤 일들을 함께하셨나요?

동원육영재단에서 책꾸러기 추천도서를 고를 때에 같이 책을 검토하고 추천해드리기도 했어요. 특히 <엄마 교과서>라는 좋은 육아서를 함께 기획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네요. 아이를 키우는 데 중요한 점을 잘 짚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책꾸러기 회원들에게 많이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비용소에서 많은 책을 책꾸러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해주셨는데,

그중 대표님께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은 무엇이었나요?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이 생각납니다. 책꾸러기 회원들에게도 가장 사랑 받은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성인 시인이신 최승호 선생님께서 말놀이와 낱말 익히기를 염두에 두고 쓰신 동시집이에요. 선생님께서 프랑스엔 말놀이 동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엔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저희가 같이 기획하고 선생님께서 집필하셔서 5권으로 완간했지요. BTS의 아버지인 방시혁 씨가 동요집으로 만들어서 많은 어린이에게 사랑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꾸러기와 오랫동안 함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요?

김재철 이사장님께서선 워낙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네 자녀에게도 항상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까지 받으셨다고 알려져 있지요. 책꾸러기를 만드신 것도,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2008년 김재철 이사장님의 책꾸러기 2주년 기념 강연을 들었는데, 그 마음을 느끼고 굉장히 감동 받았습시다.

책꾸러기와 동행했던 시간이 비용소에 있어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동원책꾸러기 측에서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책을 고르고 진심을 담아 1년에 열두 권의 책을 아이들에게 보낸 건, 책을 대하는 제 마음을 고무시켰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할 책인지, 아이들이 좋아할 책인지 언제나 생각하지만, 그런 진심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계속 하게 됐어요.

책 육아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문해력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 문해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주면 듣는 힘도 길러지고 애착관계 형성에 정말 좋습니다. 전 저희 아이들 6, 7세 이후로는 책을 안 읽어줬던 것이 후회가 돼요. 아이가 좀 더 커도 읽어달라고 한다면 많이 읽어주세요. 또 그림책을 읽은 다음엔 책에 나오는 그림을 그려보거나 요리나 연극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해보시길 권합니다. 책을 통해 여러 분야를 통섭하는 거지요. 덧붙이자면,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지금처럼 공부가 중요할 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 아이들이 공부에만 열중하기보단 책을 많이 읽고, 신나게 뛰어놀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뛰어놀게 해주세요.

“책꾸러기는 \_\_\_\_\_다” 대표님께서 빈 칸에 넣으실 말은 무엇일까요?

“책꾸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씨앗이다”. 씨앗은 땅 속에 한참 있다가 큰 나무로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씨앗처럼 하나하나 품었다가 나무처럼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은 지식을 줄 수도, 감각을 건드릴 수도, 웃음을 줄 수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모여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책꾸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일년 동안 열두 번 아이들에게 씨앗을 숨겨준 셈이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책꾸러기가 세상과  
다채롭게 소통하도록 도운  
EBS 사회책임경영실  
정경란 부장



책꾸러기는 국내 대표 교육 채널 EBS와 함께 〈한글이야호〉, 〈육아학교〉 페이스북라이브 ‘그림책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등을 제작 지원하며, 책꾸러기의 목소리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엔 숨은 조력자 EBS 정경란 부장이 있습니다. EBS와 책꾸러기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운 정경란 부장은, EBS에 30여 년째 재직 중인 워킹맘이자 책꾸러기 1기 좋은책맘이기도 합니다.

EBS와 책꾸러기가 인연을 맺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2001년 〈바나나를 탄 끼끼〉라는 국내 최초 유아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전문가를 만나며, 그림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엄마와 아이간 애착을 형성하고 문해력의 기초를 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또한 책꾸러기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책꾸러기 1기 좋은책맘이신데요. 책꾸러기는 부장님과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사실 그림책을 서점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책꾸러기 회원이 되면 그림책이 든 우편물이 아이 이름으로 옵니다. 아이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을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단순히 책을 보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엄마들이 그림책을 보고 아이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했던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책맘으로 활동하시던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요?

한 달에 한 번 책을 고를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골랐어요. 이 책은 어떨까, 저 책은 어떨까 아이들과 이야기하던 것도 추억이 되었는데요. 아이가 쌍둥이라 책을 고르면서 아이들의 취향 차이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달에 한 명이 골랐다면, 다음 달엔 다른 한 명이 고르도록 하면서 나를 질서를 만들어나갔던 것도 아이들에게 배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EBS 부장으로서, 세 아이를 양육한 엄마로서, 육아의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BS에 근무하면서 많은 교육 전문가를 만났고 여러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기 성장 보고서>나 <아이의 사생활> 같은 프로그램은 책으로 출간되기까지 했지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아이들은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아이가 세 명인데, 세 명이 모두 다르거든요. 아이들은 씨앗과도 같은데, 이 씨앗이 어떤 꽃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아이는 그 아이에 맞는 양육을 해야 하고,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언젠가는 꽃을 피우리라 믿어주는 것이 육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교육 단계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은 ‘애착’이라고들 하지요. 양육자와의 애착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애착 형성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고요. 요즘 유아 때부터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데,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상누각과도 같아서 사춘기 때 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워킹맘이 애착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워킹맘으로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요?

애착 형성이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하진 않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즐거운 경험을 같이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요.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건 분명 쉽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영상 통화도 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파일을 주고 받기도 어렵지 않으니깐요.

부장님께서선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이들 취향에 맞춰서 새로운 걸 많이 하되, 일상적 재료를 갖고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밀가루 반죽해서 쿠키도 굽고 신문지를 활용해서 모자도 접고요.

워킹맘으로서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업보다’, ‘자식은 나의 십자가다’라는 말이 있죠.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고요. 아이를 통해 부모도 성장을 합니다. 이제 막내도 스무 살이 넘고 돌아보니, 괴로웠지만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육아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책을 통해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는 문해력의 기초가 됩니다. 그림책을 함께 보는 과정은 엄마와 아이 간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고, 창의력이나 미술적 감성도 키울 수 있지요. 하지만 그림책 읽기가 아이에게 부담이 되어선 안됩니다. 읽어야 할 분량을 정해주거나 어떤 독후 활동을 강요하는 건 전 권하지 않습니다. 책을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책 읽는 경험이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이끌어주세요.

“책꾸러기는 \_\_\_\_\_다” 부장님께서 빈 칸에 넣으실 말은 무엇일까요?

“책꾸러기는 겨자씨이다”. 책꾸러기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결실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 책꾸러기의 꿈과 함께 자란 김민재 학생



책꾸러기가 보낸 그림책을 보며 꿈을 키운 아이들은 조금씩  
성인으로 자라납니다. 2014년 책꾸러기 회원이었던 김민재 학생도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책꾸러기와 함께 보낸 1년은  
벌써 머나먼 일이 되었지만, 즐겁게 책을 보던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책꾸러기 졸업생이라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꾸러기 회원 좋은책맘 콩나물 님의 둘째 아들 김민재입니다.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학과 내 언론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선 카드뉴스나 심층 취재 기사를 쓰고, 뉴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어릴 때 그림책을 본 경험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책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어요. 책의 원작인  
영화를 본다든지, 문학관을 가기도 하고,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거나 시를 써보기도 했거든요. 책을 읽고 쓰기를 계속하다 보니, 글을  
쓰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후배들의 글을  
검토하는 입장이 됐는데, 문장이나 글의 구성과 흐름 등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책꾸러기 크리스마스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그때가 기억 나는지요?

2014년 겨울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는데 그날이 제가 서울에 처음 온  
날이었어요. 동원 사옥에 직접 가서 책을 포장했는데,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포장지가 기억나요.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고 과자도  
먹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재미있게 읽었던 그림책은 무엇인가요?

아주 어릴 때 본 그림책 <넉 점 반>이 생각나요. 어린 아이가 밖에서 놀다 집에 들어오는 하루를 그린 책이었어요. 자세한 줄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림의 분위기나 그 책이 담고 있는 느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터널>이라는 그림책도 생각나네요.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내용도 좀 무서웠는데, 그래서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가 즐거웠던 적도, 힘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판타지 소설, 추리 소설, 시리즈물을 한참 좋아했는데 그 무렵엔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다음 편이 기다려질 정도로 책 읽기가 취미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독서를 읽어야 한다든지, 독후감 과제를 위해 책을 읽는 등 의무적으로 책을 읽어야 할 땐 흥미를 좀 잃었었고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의무감이 권태를 버티게 했던 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어릴 땐 책을 재미있게 읽다가도 학년이 올라가면 다른 재미있는 것들도 많아지면서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길 권합니다. 책 관련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고요. 책을 어렵게 대하기보다 추억으로 남긴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친구들과 “이 책은 이랬지”, “저 책은 그랬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책을 즐기길 바랍니다.

20대를 막 시작하고 계신데, 10대와 20대를 비교해본다면 어떤 것 같나요?

10대 때는 한창 즐거운 시기를 보내다가도, 주변 환경이나 저 자신의 변화가 많으니 항상 불안했던 것 같기도 해요. 성장기에 누구나 겪을 만한 불안이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도전하고 부딪혀보며 이전보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성인이 되고서는 자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입체적으로 느끼면서, 책임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제 감정을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10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불확실한 게 많지만, 지금을 충분히 즐기고, 추억도 많이 쌓고 낭만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전 이제 20대가 됐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낭만적인 때는 옛 친구들과 간간이 만나서 놀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옛날 얘기할 때, 또는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할 때, 그리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한 잔 할 때거든요. 이걸 10대 때 가족, 친구와 추억을 쌓으며 언제나 함께일 거란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힘들 때 돌아갈 곳이 충분히 있도록 10대를 보내면 좋겠어요.

“책꾸러기는 \_\_\_\_\_ 다” 김민재 학생이 빈 칸에 넣을 말은 무엇일까요?

“책꾸러기는 마중물이다”. 마중물은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붓는 물이잖아요. 책꾸러기는 어린 친구들에게 매달 책을 보냄으로써 친구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책을 읽고 나서 여러 활동으로 확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생각을 넓히도록 해 줘요. 그래서 책꾸러기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판사에서 온 편지

책꾸러기가 많은 친구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좋은 그림책을 만들고 뜻을 같이해 준 출판사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책꾸러기와 동행해온 출판사들로부터 기분 좋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래 전, 처음 동원책꾸러기 추천도서 선정 전화에 무척 설렜던 마음이 선합니다.  
독자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고 특히 그림책을 일반 도서처럼 접하기 쉽게 만드신 동원책꾸러기 사업은 참 기억에 많이 남겠습니다. 아이들의 책 읽기 습관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책꾸러기를 종료하신다니 출판사로서 독자로서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림책 독서 문화에 이바지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노란상상 양정수 대표

동원책꾸러기 추천도서로 선정되고 힘든 시기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는데 종료된다니 무척 아쉽습니다.  
독자 분들이 저희 책을 많이 좋아해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더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심플라이프 박경란 대표

동원책꾸러기를 통해 많은 독자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동원책꾸러기를 통해 책에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려요.  
또 책을 널리 알리고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신 동원책꾸러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린북

동원육영재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무상 지원 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원책꾸러기는 종료되었지만 또 다른 사업을 통해 또 만나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미래아이 정동환 부장

동원책꾸러기가 저희 책을 처음으로 선정했을 때, 처음으로 맺은 인연에 마치 새 친구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진정 소중한 인연은 떠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던가요? 이제 돌아보니, 첫 번째 책부터 얼마 전 보내드렸던 마지막 책까지, 동원책꾸러기가 출판사들에게 내어주었던 곁 자리가 얼마나 크고 든든했었던지, 그리고 동원책꾸러기와 저희가 맺었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무겁게 느껴집니다. 애써주셨던 노고에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월천상회 이한상 대표

16년 전 처음 책꾸러기를 받아 본 어린이가 지금은 성인이 되었겠지요. 계수나무도 동원책꾸러기 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책꾸러기와 함께 자란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손자, 손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해 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정신 성장에 투자해 주신 멋진 동원을 기억하겠습니다.

계수나무 위정현 대표

## 책꾸러기란 \_\_\_\_\_ 다

그동안 많은 좋은책맘의 곁에서 그림책의 매력을 전하며  
육아 파트너가 되어온 책꾸러기. 아이에게 좋은 책을 보여주고자 한  
좋은책맘들에게 책꾸러기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기된장

꿈이다.

책 속 이야기로 꿈을 꿀 수도 있고 아이가 원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육아동지이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매달 선물해주시니 이보다 든든한 동지는 없네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친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멍멍따

모두의 노력이다.

좋은책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아이와 책이 친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동원책꾸러기 사업과 종료 후에도 좋은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원육영재단  
모두의 노력이 담겨 있어요.

가을맘

힐링이다.

지친 육아에 힐링이 되어준 책꾸러기. 힘들 때마다  
책 보면서 마음도 다잡게 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rlawhdmra

키다리아저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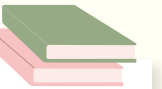
물론 책 한권 못사는 형편이 요샌 흔치 않겠지만  
절실한 이들에겐 너무 큰 도움이고 선물일 것 같아요.

201212지한맘

친구이다.

코로나로 밖에 나가기 어려웠을 때 유일하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었던 책꾸러기.  
책을 기다리고 택배가 왔을 때 아이와 함께 즐겨워하며 신나게 읽었어요.  
책꾸러기 관계자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아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엄마, 아빠는 행복합니다. 영원한 친구이고 싶어요.

튼이엄마



도서관이다.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고 심지어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책꾸러기가 한 줄기 빛처럼 아이들에게 양식이  
되어주었어요. 4학년 된 첫째도, 8살 된 둘째도, 5살 된 막내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이 많아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봄빛샤랄라

행복이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요. 2020년 중순부터 2021년 중순까지  
1년간 책꾸러기와 함께하며 아이와 책 읽기라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추억의 조각들을 주변 동생들에게도 물려주며 행복한 기억을  
나누고 있는데요. 책꾸러기를 통해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걸 아이도  
엄마도 제대로 알았네요.

후블리마밍

아이들의 미래이다.

책꾸러기를 통해 그림책과 친해졌고 그림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해요. 책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도 얻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듬뿍 자라나고 있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주는 동원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다은맘





### 추억이다.

첫째 때 책꾸러기 좋은책맘으로 선정되어 1년간 행복했어요. 지금도 책장에서 그때 받았던 책을 보면 아이가 책을 읽으며 좋아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이제 둘째가 조금 더 크면 첫째 아이가 봤던 책을 다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때가 되면 첫째 때 추억이 또다시 떠오르면서 둘째와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짚지

### 무지개이다.

무지개를 발견했을 때의 설렘과 환한 웃음을 책꾸러기 선물을 받아보면서 느껴요. 책을 통해 아이들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주기도 한 책꾸러기는 무지개입니다.

세이맘1

### 설레임이다.

아이와 함께 도서를 선택하고 한 달을 기다려 도착한 책은 기쁨이 되고, 아이와 같이 책을 읽을 생각에 기대되면서도 설레요.

하늘날개

### 초보 엄마의 길잡이이다.

동원책꾸러기로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책을 받아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추천도서를 보며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참고하며 구입해요. 거기다 카페를 통해 알게 되는 육아 선배님들의 책놀이 아이디어는 감탄을 자아내요.

푸두리

### 산타의 선물이다.

1년간 매달 아이와 책을 고르고 택배를 받고 책을 읽고 웃고 설레고 좋았던 기억만 있네요. 매달 책 기다리는 게 크리스마스 산타 선물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시안맘

### 영양제이다.

재미있고 멋진, 다양한 이야기들로 아이들을 쑥쑥 자라게 도와주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와 같아요.

루비레나

### 새봄이다.

‘새봄’ 하면 떠오르는 설렘, 신선함, 따뜻함, 꿈, 꽃, 희망 등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매달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하던 설렘과 잘 모르던 책을 새롭게 알아가는 신선함과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으며 느낀 따뜻함, 책으로 열어 나가는 아이의 꿈과, 카페에서 함께 책 얘기를 나누는 꽃 같은 분들과,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며 느낀 희망까지(북드림 캠페인도 함께 나눈 희망이죠) 모든 것이 새봄 같은 책꾸러기 덕분에 행복합니다.

새봄하늘

### 마음이다.

김재철 이사장님의 ‘책꾸러기가 책을 보내는 마음’ 문구를 읽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향한 어버이 마음에 눈물이 핑 돌며 감동한 적이 있어요. 책꾸러기 친구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받은 책을 읽으며 멋진 어른이 되고 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을진

### 시작이다.

육아라는 게 어렵고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생각에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육아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림책과 함께 그 성장의 시작을 열어준 게 바로 책꾸러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꾸는 꿈을 넘어 이 세상의 더 많은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고픈 마음을 먹게 해준 책꾸러기. 늘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사과나무2

## 고마워요, 책꾸러기!

책꾸러기가 성장해온 16년은 좋은책맘과 아이들이 성장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책꾸러기와 함께한 시간, 또 그 시간을 지나 돌이켜본 우리들의 성장기를

좋은책맘들이 진심 어린 편지로 전해왔습니다.

### 소중한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책꾸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12권의

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니. 홈페이지로 바로 달려갔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동원책꾸러기가 책을 보내는 마음’이라는 글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가슴 한 켠에 따뜻한 기운이 번지는 기분이었을까요?

지금도 매월 책을 받으면서 포장 상자에 적힌 글귀를 읽고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책꾸러기가 저희 집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전집

뿐만 아니라 단행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꾸러기 선정 도서는 필독서로, 도서관을 자주

찾다 보니 저도 아이도 그림책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새로운 책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책꾸러기를 통해 받은

〈Rain-비오는날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할아버지의 대사를 인용해

“소중한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라는 말을 아이에게 몇 번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엔 아이가 스스로 “엄마, 소중한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말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이 참 흥미로워요.

사과나무2

###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책꾸러기는 참 감사한 존재였습니다. 아이 낳고 남편 따라 먼 지방으로 왔을

때 외출은커녕 책 구경도 하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책꾸러기에서

매달 오는 책 한 권이 어찌나 소중하고 반갑고 기쁘던지. 아이와 읽고 또 읽고

읽도록 읽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로 이사 와 동네에 도서관도

있고 서점도 있어 새로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그 때만큼 소중한 책은

또 없더라고요. 책꾸러기는 단순히 책만 보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이에게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 준 고마운 친구같은 존재입니다.

선정도서 중에 동물 관련 책을 가장 좋아하고 또 직접 보고 싶어해서 동물원을

참 많이 갔어요. 책꾸러기 덕분에 아이가 동물 박사, 수의사를 꿈꾸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ibookyou

### 책 고르는 요령이 생겼어요!

책을 고르는 요령이 생겼어요. 주로 책꾸러기가 선정한 ‘이달의 그림책’ 목록을

먼저 참고하고, 책 정보 버튼을 꼭 눌러서 정독해요. 그림의 느낌도 파악해서

아이가 좋아할지 예상도 해보고요. 아이를 관찰하는 계기가 됐네요.

온라인 북키즈카페도 자주 이용해요. 코로나로 집콕하는 동안 북키즈

선배님들에게 책놀이도 배워서 쉬운 것부터 해보고 있답니다. 시간도 잘 가고

아이가 정말 좋아해요. 책꾸러기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 뿐이에요. 좋은책맘이

된 건, 여러모로 제게 큰 행운이었답니다. 든든한 육아 지원군 책꾸러기.

매달 아이를 설레게 해주는, 그리고 제게 항상 좋은 자극이 되어주는 책꾸러기.

열두 달 졸업 후에도 계속 꼭 함께하고 싶어요.

커피케이크





## 땡땡! “엄마!! 책꾸러기 왔나 봐요!”

저희 아이가 택배받는 기쁨을 알게 된 건 바로 책꾸러기 덕분이예요. 처음에 책꾸러기 책을 택배로 받은 뒤부터는, 택배만 오면 자기 책이냐고 물었답니다. 저도 1년간 이달의 책을 선정하고나면 설렘으로 책 배송을 기다렸는데, 아이도 저와 함께 책을 기다리며 책이 주는 기쁨을 배워갔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던 건 책꾸러기에서 받았던 책은 모두 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만 쓱쓱 뽑아서 리스트에 넣으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꼭 전집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면 즐거운 책 육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책꾸러기 책을 매달 받으면, 받자마자 뜯어서 무릎에 앉혀서 읽어줬는데 아이가 지금도 엄마 무릎에 앉아서 책 이야기 듣는 걸 무척 좋아해요. 애착 육아가 이런 것 아닐까요! 아이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해준 책꾸러기에 정말 감사해요.

별맘

## 육아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어요

책꾸러기 덕분에 매달 소중하고 즐거운 책들과 함께하다보니 아이도 저도 이제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단어만 말하던 18개월 아이는 어느새 자기 생각을 말로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어요. 책을 읽는 즐거움과 카페에서 활동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고단한 육아를 잘 버텸네요! 댓글 만 개를 적을 만큼 너무너무 즐거웠던 놀이터 같은 곳이라 책꾸러기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니 친구와 헤어지는 기분이에요. 육아의 모든 순간을 동원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동원의 새로운 시작도 늘 응원할게요. 잊지 않겠습니다.

땡글전설2314

## 초보엄마에게 육아지침서 같은 책꾸러기

육아 초보이다 보니 아이들 책은 정보도 부족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검색하면 광고들도 너무 많아서 난감했는데 책꾸러기 홈페이지의 선정 도서와 카페에 업로드 되는 상황별 추천도서 그리고 선정 도서 외에도 책 육아 게시판을 통해 다른 분들이 어떤 책을 추천하고 활용하는지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어떤 책을 고를까 하며 선정 도서들을 살펴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로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 예전보다 SNS 구경하며 단순히 폰을 만지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책꾸러기를 알고부턴 온라인 카페를 살펴보며 정보를 얻거나 아이한테 어떤 책이 좋고 이런 상황엔 아이와 어떤 책을 볼지 찾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루 중 오로지 내 아이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준 것이 책꾸러기가 엄마, 아빠들에게 주는 첫 선물인 것 같아요.

Qhfka2314

## 엄마에게도 선물같은 시간이었어요

책꾸러기는 아이 못지않게 엄마인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시다. 육아가 처음인 저는 마음도 몸도 점점 지쳐가던 중 책꾸러기를 신청했고, 책꾸러기 선정 육아서 <매일 도서관에 가는 엄마>를 보내주셨어요. 구구절절 내가 쓴 듯한 느낌, 누군가 저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에 그날 저녁엔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괜찮다며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육아서를 읽고 저 역시 엄마는 처음이니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기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매달 책꾸러기 도서를 신청하는 일이 처음 임신과 출산을 하며 다짐했던 마음을 다시 상기시켜 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짜장토끼



##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한테 책도 꺼내고 좋아하는 책도 생겨서 몇 번이고 보여달라고 한데 우리 아인 별 관심이 없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책을 그냥 보여주지만 했던 게 아이 흥미를 떨어트렸던 것 같아요.

책놀이가 뭔지도 몰랐는데 다른 분들이 올려주는 글을 보며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책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책에 나오는 동작 따라하기부터 시작했더니 아이가 책에 푹 빠져들더라구요. 이젠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생겨 읽어달라고 꺼내오기도 하고 책 내용을 기억해서 그걸 따라하기도 하네요.

아이 책은 잘 몰라 전집 위주로 보여주었는데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꾸러기 추천 책들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이 그림책인데 어른이 봐도 좋은 책들이 많아 저까지 그림책에 빠졌어요. 책꾸러기와 함께 책육아 열심히 할게요.

지워니맘

## 책꾸러기 이후 가정에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아이가 돌이 되기 전부터 책꾸러기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신청 세 번 만에 당첨돼 책꾸러기와 연이 닿아 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접하게 된 건 친한 친구가 알려주었기에 신청해볼 수 있었고 이후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책꾸러기 덕분에 아이에게 책을 골라줄 때 저의 눈높이가 아닌 아이의 눈높이에서 고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 권 수가 아닌,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어주니 지금도 아이가 책에 흥미있어 해요.

책꾸러기 시작 이후 책장을 장만하고 도서 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도 종종 가고 대여한 책 중에 아이가 특별히 좋아한 책은 구입해서 읽기도 하며 가정에 변화가 생겼어요.

별이달이 사랑해

## 말이 늦게 터진 아이

올해 5세가 된 첫째가 말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생후 30개월이 다가오도록 언어 발달에 큰 변화가 없어 같은 반 어린이집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불안해졌어요. 방법을 찾다가 책꾸러기와 그림책 육아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글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책꾸러기에서 공유하는 이달의 선정 도서 목록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감히 조언 드립니다. 아이가 아름다운 단어를 만나도록 기다렸던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의 책 육아로 둘째는 자연스레 책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이 또한 책꾸러기의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달 보내주셨던 책을 이제는 둘째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시온유

## 매달 아이는 책과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한 권 한 권, 매달 아이는 조금씩 책이랑 가까워지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아이는 아빠가 읽어주는 책이 더 좋은지 “아빠가 읽어 줘” 하며 쪼르르 아빠 품에 갑니다. 아빠는 그림 자체를 즐겨서 자기만의 대화로 읽어주니 좋은가 봐요. 사실 책꾸러기를 통해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엄마인 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그림책을 많이 접하다 보니 그때 그때 아이 관심사, 계절에 맞춰 한 권씩 골라 사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는 엄마가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책꾸러기 선정 도서가 예약 중일 때마다 책꾸러기가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많은 가정에 책 육아, 책놀이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축복이맘





## 책꾸러기 인기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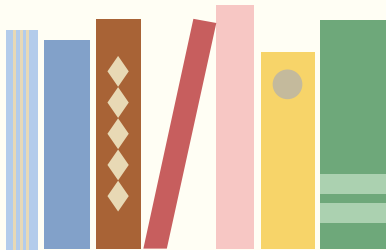
## BEST 100

| 목차서                                 | 그림책                                    |
|-------------------------------------|----------------------------------------|
| 1 엄마 교과서<br>비룡소   박경순               | 1 바다 100층짜리 집<br>북뱅크   이와이 도시오         |
| 2 부모와 아이 마음 간격<br>1mm<br>파인애플   손석한 | 2 아기곰의 첫 번째<br>크리스마스<br>주니어랜덤   카르마 윌슨 |
| 3 부모와 아이 사이<br>양철북   하임 G.기너트       | 3 구름빵<br>한솔수북   백희나                    |
| 4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br>예담프렌드   노경선       | 4 까만 토끼<br>주니어RHK   필리파 레더스            |
| 5 부모라면 유대인처럼<br>예담프렌드   고재학         | 5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br>사계절   베르너 홀츠바르트      |
| 6 엄마 심리 수업<br>심플라이프   윤희상           | 6 콧구멍을 후비면<br>애플비   사이토 타카코            |
| 7 엄마 학교<br>큰술   서형숙                 | 7 100층짜리 집<br>북뱅크   이와이 도시오            |
| 8 하루 3시간 엄마 냄새<br>김영사   이현수         | 8 위에서 아래에서<br>마루별   수 레딩               |
| 9 엄마 무릎 학교<br>위고   하정연              | 9 연이네 설맞이<br>책읽는곰   우지영                |
| 10 엄마가 아이를<br>아프게 한다<br>예담프렌드   문은희 | 10 울지 말고 말하렴<br>애플비   이찬규              |

|                                           |                                              |
|-------------------------------------------|----------------------------------------------|
| 11 수박 수영장<br>창비   안영달                     | 27 내 사과, 누가 먹었지?<br>노란돼지   이재민               |
| 12 수박씨를 삼켰어!<br>토토북   그렉 피줄리              | 28 뒤죽박죽 카멜레온<br>시공출판사(前 더큰)   에릭 칼           |
| 13 알사탕<br>책읽는곰   백희나                      | 29 내가 아빠를 얼마나<br>사랑하는지 아세요?<br>베를북   샘 맥브래트니 |
| 14 두드려 보아요<br>사계절   안나 클라라 티돌름            | 30 괴물들이 사는 나라<br>시공주니어   모리스 샌닥              |
| 15 우리 엄마<br>웅진주니어   앤서니 브라운               | 31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br>국민서관   로렌 차일드            |
| 16 Why? 왜 그래요?<br>애플비   트레이스 코드로이         | 32 코끼리<br>현복스   앤서니 브라운                      |
| 17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br>비룡소   윌리엄 스타이그        | 33 선인장 호텔<br>마루별   브렌다 기버슨                   |
| 18 아기곰에게 새 친구가<br>생겼어요!<br>주니어랜덤   카르마 윌슨 | 34 벌 할아버지<br>세웅   로리 크레브스                    |
| 19 하늘 100층짜리 집<br>북뱅크   이와이 도시오           | 35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br>북뱅크   로버트 먼치              |
| 20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다<br>아이맘   로드리고 풀게이라        | 36 사과가 쿵!<br>보림   다다 히로시                     |
| 21 미용실에 간 사자<br>키즈엠   브리타 테크트럽            | 37 고릴라 코딱지<br>노란돼지   김진완                     |
| 22 지하 100층짜리 집<br>북뱅크   이와이 도시오           | 38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br>보물창고   버나드 로제티 슈스타크        |
| 23 고 녀석 맛있겠다<br>달리   미야시니 타츠야             | 39 내 입속에 충치 가족이<br>살아요<br>살림어린이   니시모토 야스코   |
| 24 충치 도깨비<br>달달이와 콧콕이<br>현암사   안나 러셀만     | 40 뽕뽕뽕<br>책읽는곰   윤정주                         |
| 25 내 토끼 어땀어?<br>살림   모 윌렌스                | 41 설빔-여자아이 고운 옷<br>사계절   배현주                 |
| 26 터널<br>논장   앤서니 브라운                     | 42 가족은 꼬옥 안아주는<br>거야<br>웅진주니어   박윤경          |

- 43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층 버스  
사파리 | 마이크 스미스
- 44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재미마주 | 채인선
- 47 산타 할아버지만 보세요  
삼성당 | 레이첼 엘리엇
- 48 한글, 우리말을 담는 그릇  
책읽는곰 | 박동화
- 49 너는 기적이야  
책읽는곰 | 최속희
- 50 바바빠빠  
시공주니어 | 아네트 티종,  
탈루스 테일러
- 51 말썽꾸러기 데이빗  
달리 | 데이빗 새넌
- 52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스콜라 | 윤여림
- 53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길벗어린이 | 김영진
- 54 관찰력을 길러주는  
또또와 사파나무  
세상모든책 | 나카에 요시오
- 55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문학동네 | 마리 프랑스 보트
- 56 뭐 어때! 내 맘이야  
아르볼 | 윤희정
- 57 아빠, 코 잘래요!  
키다리 | 앤드루 대도
- 58 이슬이의 첫 심부름  
한림 | 쓰쓰이 요리코
- 59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  
시공출판사(前 더큰) | 에릭 칼
- 60 아빠랑 함께 피자놀이  
보림 | 윌리엄 스타이크
- 61 자라고 자라면  
애플비 | 편집부
- 62 산타 할아버지,  
11개월 동안 뭐 하세요?  
미래아이 | 마이크 라이스
- 63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세상모든책 |  
클레르 프리드먼
- 64 우리몸 털털털  
웅진주니어 | 김윤경
- 65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솔이는 엄마 마음도 몰라  
상상스쿨 | 이상희
- 66 토끼의 의자  
북뱅크 | 고우야마 요시코
- 67 괜찮아  
웅진주니어 | 최속희
- 68 책 먹는 여우  
주니어김영사 |  
프란치스카 비어만
- 69 쿠키 한 입의 인생수업  
책읽는곰 |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
- 70 내가 최고 자동차  
키움 | 김준미
- 71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상자  
고래이야기 | 코키루니카
- 72 우리 아빠가 최고야  
킨더랜드 | 앤서니 브라운
- 73 화가 나서 그랬어!  
현암사 | 레베카 패터슨
- 74 눈사람 아저씨와  
눈강아지  
마루벌 | 레이먼드 브리그스

- 75 유치원에 가면  
애플비 | 김선영
- 76 떼쟁이가 달라졌어요!  
애플비 | 질리언 쉴즈
- 77 내가 어른이 되면 말이야  
해솔 | 게턴 도레뮤스
- 78 함께 세어 보아요  
마루벌 | 안노 미쓰마사
- 79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한림 | 사토 아키코
- 80 펭귄 호텔  
주니어RHK | 우시쿠보 료타
- 81 설빔-남자아이 멋진 옷  
사계절 | 배현주
- 82 노란우산  
보림 | 류재수
- 83 내가, 내가 할래요!  
키다리 | 앤드루 대도
- 84 이잘달야 공주와  
이안달야 왕자  
노란돼지 | 이주혜
- 85 티치  
시공주니어 | 팻 허친즈
- 86 울지말고 말하렴  
두산동아 | 이찬규
- 87 애완공룡 티라노  
푸른날개 | 페드로 페니조프
- 88 으둠 헤엄이  
마루벌 | 레오 리오니
- 89 안 돼, 데이비드!  
주니어김영사 | 데이빗 새논
- 90 엄마가 화났다  
책읽는곰 | 최숙희
- 91 효재의 보자기 놀이  
마루벌 | 이효재
- 92 우리 아빠가 좋은  
10가지 이유  
미래엔아이세움 | 최재숙
- 93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채미마주 | 이호백
- 94 메리크리스마스,  
늑대아저씨  
시공사 | 미야시나 타츠야
- 95 무지개 물고기  
시공주니어 | 마르쿠스 피스터
- 96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풀빛 | 스펀 누르드크비스트
- 97 숨쉬는 향아리  
보림 | 정병락
- 98 집 나가자 꿀꿀꿀  
웅진출판 | 야규 마치코
- 99 우리 엄마 어디있어요?  
한울림 | 기도 반 게네흐텐
- 100 달 샤베트  
책읽는곰 | 백희나



함께한 출판사

|       |         |         |         |                  |
|-------|---------|---------|---------|------------------|
|       |         | 재미마주    | 오성씨앤앰   | 파인앰곳             |
|       |         | 한림      | 사파리     | 한솔수북             |
|       |         | 천개의바람   | 월천상회    | 장수하늘소            |
|       |         | 크레용하우스  | 씽크스마트   | 계수나무             |
| 마루별   | 베를북     | 키즈엠     | 바둑이하우스  | 어린이아현            |
| 비룡소   | 상상스쿨    | 미래아이    | 봄별      | 아이와책             |
| 사계절   | 논장      | 세원아이씨케이 | 북스토리아이  | 푸른길              |
| 보림    | 고인돌     | 애플비     | 소원나무    | 책먹는아이            |
| 길벗어린이 | 오디북스    | 거인      | 상 출판사   | 킨더랜드             |
| 느림보   | 토토북     | 꿈소담이    | 모래알     | 스폰북              |
| 큰나    | 푸른숲     | 장영      | 위즈덤하우스  | 봄의정원             |
| 나무와숲  | 풀빛      | 그린북     | 북핀      | 문학동네             |
| 살림출판사 | 미래엔아이세움 | 위고      | 심플라이프   | 황금여우             |
| 열린어린이 | 책속물고기   | 국민서관    | 나는별     | 파랑새              |
| 양철북   | 어린이작가정신 | 같이보는책   | 여유당     | 푸른날개             |
| 달리    | 주니어김영사  | 키워북스    | 아울북     | 노란우산             |
| 한언    | 책과콩나무   | 다림      | 시금치     | 뜨인돌어린이           |
| 루크북스  | 키움      | 아르볼     | 우리동네책공장 | 진선아이             |
| 한울림   | 노란돼지    | 김영사     | 냉이꽃     | 에듀애펙크            |
| 세상모든책 | 담푸스     | 밝은미래    | 현암주니어   | 푸른숲주니어           |
| 나무생각  | 현북스     | 시공주니어   | 로그인     | 미디어창비            |
| 해솔    | 파랑새     | 재능교육    | 길벗스쿨    | 꿈터               |
| 봄봄    | 파랑새     | 씨드북     | 이야기꽃    | 제제의숲             |
| 세용    | 북뱅크     | 찰리북     | 큐리어스    | 풀과바람(바우솔)        |
| 글로연   | 문학과지성사  | 지식너머    | 책내음     | 비즈니스북스<br>(북라이프) |
| 책읽는곰  | 삼성당     | 보물창고    | 아라미     |                  |
| 키다리   | 아이맘     | 단비어린이   | 미세기     | 토피카              |
| 푸른날개  | 북극곰     | 창비      | 다섯수레    | 작가의탄생            |
| 효리원   | 주니어북스   | 쉽어린이    | RH코리아   | 보랏빛소어린이          |
| 노란상상  | 보리      | 글담      | 고래뱃속    | 책마중              |
| 내인생의책 | 웅진주니어   | 트로이목마   | 예담프렌드   | 나무말미             |

발행처 동원육영재단

발행일 2023년 1월

동원육영재단 홈페이지 [www.dwef.or.kr](http://www.dwef.or.kr)

동원책꾸러기 홈페이지 [www.iqeqcq.com](http://www.iqeqcq.com)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동원육영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